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일 월요일 음 5월 26일 (3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비가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5℃, 낮 최고기온은 24~28℃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3.5m로 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80%	제 주	80%
70%	성 산	80%
80%	고 산	80%
80%	서귀포	80%

해뜸 05:28 해짐 19:48		달뜸 01:18 달짐 15:11
물때	만조 06:15 19:50	간조 00:33 13:00

자외선지수	산불위험지수
높음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4/30℃
모레	흐리고 비	25/31℃

월드뉴스

러 방학 맞아 北으로… 어린이 교류 캠프

북 최대 야영장 송도원에서

북한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학생소년들 야영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가 다음 달 어린이들을 북한으로 보내 여름방학을 보내게 할 계획이라고 타스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의 친정부 청소년단체 '첫 번째 운동' 대표 그리고리 구로프는 타스 통신에 북한과 어린이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28일) 초대를 받은 상태"여서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러시아 어린이들을 북한 '송도원' 여름 캠프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도원은 강원도에 있는 북한 최대 야영장인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로프는 송도원이 아르테크 등 러시아의 어린이 캠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크림반도에 있는 아르테크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데려와 재교육하는 기관이라며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구로프는 "신청자가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린이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욱 편집국장 고 대 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동제주·서제주 명칭 과연 바람직한가

위 영 석
뉴미디어부국장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자치도정이 핵심과제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시된 3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거쳐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는 주민투표에 앞서 어떤 업무를 도에 남기고 어떤 업무를 시로 넘길지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 한가지만 짚고 싶다. 과연 용역진이 제시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라는 명칭이 타당한가의 문제다. 현재의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인 갑·을을 그대로 적용해 방향표시로 결정한 명칭인데 이 명칭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론화는 없어 아쉽다. 행정구역 명칭은 한 번 결정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변경을 위한 후속작업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하기에 앞서 명칭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제주자치도의회 차원에서도 명칭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전국적으로 방위표시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있는 사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인천 동구는 2017년 전 세대원 우편 설문조사를 거쳐 2018년 미추홀구로 변경됐고 인천 서구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 7월에 전담 조직까지 만들 예정이다.

기초지자체는 아니지만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은 2009년 서면에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서면이라는 방위표시 명칭이 지역적 특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때문이다. 강원 영월군 하동면도 역시 2009년 김삿갓면으로 변경됐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추진하는데 이름이 대수냐고 의문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제주와 서제주는 방향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 이름에서 주는 함축적 의미나 지역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명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광역자치단체명에 '제주'라는 고유 지명이 포함된 만큼 지역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앞서 예를 든 미추홀은 인천도호부 관아가 위치해 개항 이전까지 인천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한 명칭이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처럼 도시의 역사적 명칭이 도시의 하위 행정구역 명칭으로 채택된 사례다.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도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 등 중요 사안들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시민 공모 등을 통해 바람직한 명칭을 만들어가야 한다. 의견을 모으고 자문을 받으면 얼마든지 좋은 행정구역 명칭이 나올 것으로 본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지금의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는 양 지역의 미래와 지역적 함의를 가지는 명칭은 분명 아니다.

열린마당

여성이 안전해야 제주는 안전하다

김 은 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보관실

최근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은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성이 성범죄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이상 화장실에서조차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생활까지 침범했음을 의미한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안전한 제주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갔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도지사 책무 규정, 안심 비상벨 및 안심 스크린 등의 예방시스템 설치,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실태 조사 등이 포함됐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생활을 불안하게 한다. 비단 화장실뿐만 아닐 것이다.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도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간은 안전해야 한다. 더욱이 여성이 안전해야 제주는 온전하게 여성친화도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고(故) 문형순 이장·화장·안장 행사 단상

현 수 성
독립연구자

모든 추모와 위령에는 나름의 의미와 절차가 있는 듯하다. 이번 고(故) 문형순 서장의 추모와 위령에도 여러 지점에서 생각해볼 거리가 있었다.

우선 위령의 주체는 누구였을까. 필자가 목격하고 기억하(고자)는 위령의 주인공은 이북5도민 그리고 4·3유족회였다. 노현규, 강순주 옹이 그렇다. 두 인물로 대표되는 위령의 주인공은 오등동에서 성묘와 벌초를, 봉개동에서 제례를 지내왔다. 두 대표자는 문 서장과 혈연적 연고가 없다. 그러나 벌초와 제례를 통해 두 조직의 대표가 이번 안장식 위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위령 행사는 누가 주관하게 된 것일까. 경찰은 최고의 예우로 문 서장을 모신다고 했다. 양지공원에서 화장 후 안장지인 호국원까지 순찰차, 운구차와 호위 행렬이 이어졌다.

문 서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돼야 할까. 문 서장은 식민 시기 무장 항일 독립, 분단과 냉전 4·3 시기 부당한 희생을 막은 민주 경찰, 6·25 전쟁 예비검속과 빨치산 토벌이라는 다면적 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안장은 참전 유공자라는 근거로 제5묘역에 위치하게 됐다. 경찰이 민주경찰을 표방했지만 안장의 근거는 반공 경찰의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호국원 안장의 수단과 방식에 대해서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와 관련해 사후적으로라도 끊임없이 회자돼 위령의 수단과 방법이 고인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와 더불어 계속해서 성찰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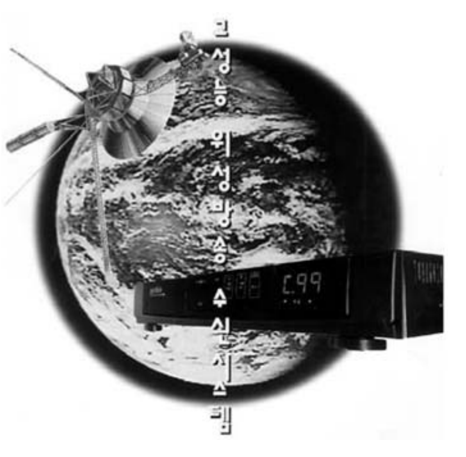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종묘 공급]

포트묘란?
▶ 잔뿌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 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外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外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 -1082

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써니트 - 카라향 - 원터프린스
★ 조 생 - 유라 - 궁천
★ 기 타 - 레몬 - 하귤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써니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순 나눔(고접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 시정 조치 현황 · 농가 : 17 농가 · 업체 : 1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 락 처 : 010-3696-2057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